



2 **종합**
제44대 With:u 총학생회 출범

4 **스포츠**
쇼트트랙 박장혁 동문 인터뷰

5 **기획**
이슈 속 숨겨진 반복되는 불통

8 **문화**
중국의 문화침탈, 그 진실은

베이징에서도 빛난 한국체대 선수들의 활약



왼쪽부터 황대현, 박장혁, 이준서, 김아람, 차민규, 이승훈

출처 : 네이버스포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결산

중국 베이징 국립 경기장에서 지난 20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4위를 기록했다. 당초에 계획했던 금메달 1~2개와 종합 순위 15위 진입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경기장에 중국 관중들만 입장할 수 있어 시합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대한민국 선수단은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도쿄올림픽에 이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국체대) 재학생, 졸업생 선수들의 활약은 계속됐다. 대한민국 선수단 65명 중 한국체대 출신 선수들은 재학생 7명, 졸업생 16명으로 총 23명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학 선수들은 총 5개의 메달(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을 획득했다. 전체 메달의 약 56%를 차지하면서 올림픽 입상 실적에 크게 이바지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빠졌

올림픽 개최 전부터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고충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에 이소로 손꼽히던 심석희(한국체대 40회 졸업)는 국가대표 동료 조류 및 승부 조작 언급 논란으로 인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전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임효준(한국체대 39회 졸업)은 지난해 3월에 한 매체 보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발전에서 탈락하여, 국

적 변경 후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동의조차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스피드 스케이팅 간판선수였던 이상화(한국체대 31회 졸업)도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은퇴 소식을 전했다.

결국, 이전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올림픽 개막 2주 전에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서 선수들은 짧은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야 했다.

개막 이후에도 계속된 악재

올림픽 개막 후에도 선수들을 향한 악재는 계속되었다.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함께 진행된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는 거의 매 경기 선수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선수가 '출발전 전 코너링 구간'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경기장의 빙질에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쇼트트랙 박장혁(한국체대 41회 졸업) 선수도 남녀 혼성 계주 경기 도중 해당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이어진 1,000m 준준결승 경기에서도 이탈리아 선수와 충돌하면서 넘어졌다. 이때 뒤에 있던 중국 선수의 스케이팅 날에 왼손이 찢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 박장혁 선수는 어드밴스를 받아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결국 참석하지 못했다.

스켈레톤 윤성빈(한국체대 37회 졸업) 선수는 평창에서 사용한 '아이언맨 헬멧'이 아닌 여분의 검은색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다. 그는 8년 동안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아이언맨 헬멧을 쓰고 국제대회를 소

화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되었다.

홈 텃세, 편파판정 파문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전에서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일어났다. 1조에서 경기를 펼친 황대현(한국체대 42회 졸업)은 깔끔한 인코스 추월을 보여주며 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심판은 늦은 레인 변경을 이유로 황대현에게 반칙을 선언했다. 황당한 판정은 이어진 2조의 경기에서도 계속됐다. 2조로 출전한 이준서(한국체대 4학년)는 조 2위를 차지하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 짓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심판은 이준서가 경기 중 험거리 선수와의 접촉 과정에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결국, 이들은 실격 처리되어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메달 가능성이 컸던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한국 선수 모두가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명가의 자존심이 빛났다

부정적인 소식이 잇따를 때쯤, 황대현이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주며 상황을 반전시켰다. 편파판정의 피해를 본 황대현이 설욕에 성공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차민규(한국체대 36회 졸업) 선수는 올림픽 2연속 은메달을 달성하면서 4년 전과 같은 시상대에 올랐다. 남자 매스스타트 초대 챔피언인 이

승훈(한국체대 31회 졸업) 선수도 동메달을 획득해 스피드 스케이팅 베테랑임을 입증했다. 이승훈 선수는 동계, 하계를 통틀어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6개)을 세우면서 정상에 섰다. 쇼트트랙 김아람(한국체대 38회 졸업) 선수가 포함된 여자 대표팀과 황대현, 이준서, 박장혁 선수가 포함된 남자 대표팀은 각각 3,000m와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가져오면서 쇼트트랙 강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박장혁 선수는 왼손을 11바늘로 꿰매는 수술을 받았지만 계주 경기에 참가해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

마침내, 어게인 평창!

스노보드 이상호(한국체대 38회 졸업) 선수는 평창대회전 예선 경기에서 39.96초를 기록해 마의 40초대 벽을 깼다. 예선전 31명의 선수 중 유일하게 30초대를 기록하며 세계랭킹 1위의 실력을 여실히 발휘했다. 그는 8강에서 0.01초 차이로 준결승 진출 기회를 놓쳤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련했다."라는 소감을 전하면서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디펜딩 챔피언 윤성빈 선수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다. 윤성빈 선수는 대회 전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메달권 진입이 어려울리라 예측했다. 1차 시기에서 13위를 기록한 그는 이어진 2, 3, 4차에서 12위에 안착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었다.

여자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 김보름(한국체대 35회 졸업)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5위를 기록했다. 지난 올림픽에서 김보름 선수는 여자 팀 추월 경기 중 '왕따 주향'

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온갖 비난에 시달렸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해 의혹에서 벗어났다. 이후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은 김보름 선수는 메달보다 더 뜻깊은 경험과 함께 웃으면서 올림픽을 마무리했다.

빙판에 꽃핀 한국체대 정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회였다. 과거 올림픽에서도 크고 작은 스캔들이 있었지만, 폐막식 전까지도 베이징에서는 잠음이 끊이지 않았다. 빙질 및 설질 논란과 쇼트트랙 운영 미숙, 황대현, 이준서를 향한 어이없는 판정, 스포츠 경기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되는 도핑 파문까지 발생하면서 실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답게 올림픽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도 있었다. 여자 쇼트트랙 계주 시상식에서는 세 나라의 선수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황대현은 쇼트트랙 남자 500m 경기에서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추월하던 중 2위인 캐나다 선수와 충돌했다. 경기가 끝난 뒤 황대현은 캐나다 선수에게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우리 선수단은 성적이 연연하지 않는 아름다운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다.

오는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11월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다. 부디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노력이 부당함에 무산되지 않는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장재인 편집장 202090032@m365.knsu.ac.kr

한국체대와 세상이 만나는 곳, 이젠 나무와 꽃

한국체육대학교를 둘러싸던 철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는 작은 나무와 꽃이 자라난다. 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의미상으로도 학교의 첫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담장 변경을 희망했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담장은 학교와 바깥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바깥에서 보는 학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안용규 총장은 지난 2019년 학보사와의 인터뷰에서 “생태 조성 및 벤치 설치 등 캠퍼스 내 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학교 전체에 걸쳐 설치된 철조망을 다 없애고, 현재의 보성 중고등학교 방면 철조망 자리에는 나무를 심어서 열린 공간으로서의 한국체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히며 철조망 해체 및 멋진 경계를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고 3년 뒤 이를 실행했다. 철장이 있던 자리엔 나무와 꽃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와 세상의 새로운 경계는 다시금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원 기자 jongwon@knsu.ac.kr

퍼스 내 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학교 전체에 걸쳐 설치된 철조망을 다 없애고, 현재의 보성 중고등학교 방면 철조망 자리에는 나무를 심어서 열린 공간으로서의 한국체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히며 철조망 해체 및 멋진 경계를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고 3년 뒤 이를 실행했다. 철장이 있던 자리엔 나무와 꽃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와 세상의 새로운 경계는 다시금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철망을 없앤 모습

코로나19 ‘3세대’ With:u 총학생회 출범

2022년 한국체육대학교에 코로나 3세대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출범했다. 비대면 시대에 With:u 총학은 한국체대의 임인년을 어떻게 가꿔나갈지, 공약 분석과 더불어 학생회장과와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았다.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국체대) 제44대 With:u 총학생회가 1월 1일 출범했다. 송 석(스포츠청소년지도 18) 학생회장, 김재훈(스포츠청소년지도 18) 부학생회장을 필두로 9개의 부서(미디어홍보국, 참여소통국, 교육정책국, 시설안전국, 재정관리국, 사업기획국, 체육문화국, 대외협력국, 학생복지국)가 업무를 분담한다.

공약은 크게 7가지로 나누었고, 각각의 공약에 세부 사항을 더했다. 지난 12월 2일 온라인으로 입후보자 온라인 의견발표회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최종 발표했다. 학보사에서는 With:u 총학생회의 공약별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문화와 함께하다

문화 공약 부분에서는 한국체대의 특수성을 활용했다. 20, 21년에는 펜데믹으로 인해 교내 체육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총학에서는 이번 해에 교내 시설을 활용한 여

러 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전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언급한 바 없다.

이 외에도 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학교 이미지를 제고하며 교내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교내 공모전 실시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사업 실행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 유튜브 운영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복지와 함께하다

총학은 제휴업체의 확대를 약속했다. 기존 제휴업체와의 재계약과 더불어 풋살장, 스터디 카페 등의 업체와 새롭게 제휴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2월 9일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아이티 버팀목)와 제휴를 맺었고, 22일에는 영화관(메가박스 강동)과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학위복의 디자인을 특색있게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학위복 공모전을 실시하고 재학생 전체투표를 통해 공식 학위복을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외에도 ▲SNS를 활용한 도서 중고 장터 활성화 ▲교내 홀카페 입점 추진 ▲다

양한 메뉴의 구내식당 입점 추진 ▲이마트 24 편의점 입점 추진을 약속했다.

시설과 함께하다

총학은 1월에 신축 학생회관 가구 배치안을 학교에 전달했다. ‘시설과 함께하다’에서는 학생 공간 조정 해결을 약속했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이 1월에 시행되었다. 또한 교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하고자 ‘자전거 주차타워 설치’를 강조했다. 자전거의 분실·도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면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학생 회의 공간을 증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소통과 함께하다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총장과의 공개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 전달이 가능케 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학생과 총장의 만남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공약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이와 함께 매월 말 SNS를 통해 총학생회 사업 보고를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달 2일에 ‘1월 활동 보고’를 게시하면서 ‘소통’ 분

인사발령	
■ 정년퇴직 변원태 교수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 승진 안성환 교수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산업학과
■ 명예퇴직 김옥희 교수 교양교직과정부	김지연 부교수 생활체육대학 특수체육교육과
■ 신규 임용 전유정 조교수 생활체육대학 운동건강관리학과	■ 특임교수 장석왕 교수 생활체육대학 운동건강관리학과
박태민 조교수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김현종 교수 스포츠문화예술대학 공연예술학과
오유진 조교수 교양교직과정부	

야 공약 시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 외에도 ▲분기별 총학생회 평가 설문조사 실시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한 소통 ▲교내 스튜디오를 활용한 KNSU 라디오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학생권리와 함께하다

이번 총학생회는 공약에 학생 권리 실현이 가능케 하는 것에 집중했다. 첫 번째는 세부성적 공개제도를 주장했다. 최종 학점만 알 수 있는 교내 성적 평가 방식을 알 권리의 침해라고 간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복수·부전공 합격선과 경쟁률 공개 요구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다뤘다.

또한 교내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인권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내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 알림 체계를 확립하여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적 학칙과 함께하다

‘민주적 학칙과 함께하다’에서는 학칙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학칙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81조 (금지사항)]에서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 수업 거부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총학에서는 이처럼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학칙을 바꾸겠다고 공고했다. 이 외에도 ▲학사 운영 관여 금지 폐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단일 출마 혹은 권위 시 학칙 개정 및 신설을 공약에서 강조했다.

학생자치와 함께하다

총학생회는 학생기구를 공식 기구로 등록하여 균형 잡힌 학생 거버넌스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았던 대의원을 부활시키고 중앙운영위원회를 공식 기구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지난 1월 19일 대의원회 선출 공고를 발표하며 개혁 시작을 알렸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투표 반영 비율은 학생 5%, 직원·조교 12%, 교수 83%으로 현재까지 교수진의 투표 비율이 높다. 이에 총학은 대학교수,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들의 공약에서 드러냈다.

44대 With : u 총학생회장 인터뷰

“학생의 목소리가 대학에 울릴 수 있도록”

Q. 이번 총학생회의 출범 의의가 무엇인가요?

A : 작년에 복학을 하면서 총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총학생회와는 많이 달랐어요. 작년에 로고 원복과 관련한 이슈, 진천 캠퍼스 이슈 등 여전히 학교는 논란 속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학교에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도 총학생회 주요 직책을 맡은 임원으로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쉬움이 남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아쉬움과 부끄러움으로 끝내기엔 저의 모습이 싫었고, 이러한 대학을 보며 언젠가는, 누군가는 바뀌야 할 일이지에 연과 뜻을 같이했던 부총학생회장 김재훈 학우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7가지로 공약을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A : 공약은 구체적으로 7가지 분야로 구분되고, 총 29개의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9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많은 공약을 내세워 학생들의 지지를 얻겠다.”가 아닙니다. “많은 공약처럼 아직도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상당 부분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고, 아쉽게도 현실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문화, 복지, 시설, 소통, 학생 권리, 민주 학칙, 학생 자치의 7가지 분야로 공약을 나눴는데요, 그간 저희 학교가 문화, 복지에 포커스를 맞춰왔다면 올해는 문화, 복지뿐만 아니

라 시설, 소통, 학생 권리, 민주 학칙, 학생 자치까지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Q. 7가지 공약 중 어떤 공약을 집중해서 내세웠는지 궁금합니다.

A :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7가지 공약 중 하나를 뽑자면 총장직선제 학생 비율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제8대 총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학생 투표 실질 반영 비율은 5%에 그쳐요. 대학은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해줬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학생 1표당 환산 0.002표의 수준이거든요. 총장이라는 자리는 어느 한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대학의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고, 학교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생 또한 대학의 구성원 중 하나로 대학의 장을 뵈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Q. 큰 개혁을 목표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요?

A : 올해 학교 변화에 중점을 두고 큰 개혁을 하고자 나왔지만,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올해 저희 제44대 총학생회가 앞으로 있을 대학 변화에 발화점이 된다면, 그리고 후배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앞날을 기약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총학생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총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들이 학교 전반에 관한 정보나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해요. 더불어 관심으로부터 얻은 학생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권익 보호를 위해 요구하기도 하죠. 또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를 충분히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 아직 임기의 1/4조차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천마생활관(기숙사)에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으로 이뤄진 간담회부터 수강 신청 문제 학생 요구안, 수업방식 고지 촉구 학생 요구안 등 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학우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는 항상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학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단순히 저희 총학생회의 의견에 불과해요.

학생의 목소리가 대학에 울릴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44대 총학



송석 총학생회장(스포츠청소년지도 18)

생회 또한 학우 여러분의 비판, 그리고 격려를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사고와 겸손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내일을 만드는 너와 나, 한국체육대학교 제44대 총학생회 With:u 총학생회장 송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내일을 만드는 너와 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 학생과 함께하겠다는 이번 총학생회이다. 따라서 총

학에서는 공약 실행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시대 2년을 거친 후 출범했기 때문에, 이전 사례를 통해 한국체대의 모습을 가꿔나가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코로나 3세대 총학생회인 With:u, 그들의 소통 능력과 개혁 정신에 기대를 걸어보자.

김규태 기자 khj96119@knsu.ac.kr

한국체대 대학혁신 지원사업 공청회

혁신 위한 첫 걸음 ‘참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2월 28일 본관 1층 합동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공청회에는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선 우리 학교의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세부 혁신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형 체육인재육성’을 중점으로 전개된 세부 혁신사업은 ▲미래지향 체육학사구조 구축 사업 ▲스포츠 메타버스 인재 양성 및 리빙랩 운영 사업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미래지향 체육 학사구조 구축 사업은 기존 교육과정이 경직되어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학과별로 1학년을 제외한 교육과정에서 전공 트랙(Track) 제도를 구축하고 8학기 졸업, 한 학기 15주 학사 제도를 개편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학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스포츠 메타버스 인재 양성 및 리빙랩 운영 사업은 정부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에 따라 스포츠 분야도 메타버스가 발전될 분야가 많이 존재해 이에 맞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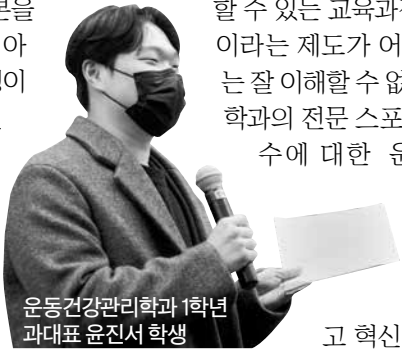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체육 관련 기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리빙랩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은 우리 학교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과 지역 사회 기여라는 공공성에 집중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을 위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타 대학교와 공유 협력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학내 구성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의견을 표출했다. 그 중 올해 입학하여 운동건강관리학과 1학년 과 대표로 참여한 윤진서 학생의 발언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먼저 사전에 공청회 당일 배부한 우리 학교 대학혁신 지원사업 요약본을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신입생이 다 보니 학교 관련 정보가 빈약할 수 밖에 없어 1시간 반 만에 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듣기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이란 새로운 것”이라 하며 우

리 학교의 특성화된 부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재학 중은 물론 졸업하고 나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 제대로 된 대학을 경험하지 못한 신입생이었으나, 그의 의견은 재학생들이 자리했다면 필히 동감을 표현할 만한 것이었다. 실제로 본보 기자가 공청회 참석 3일 전에 교육부의 ‘22~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과 우리 학교의 ‘종합발전계획 VISION2030’을 읽고 감에도 공청회 내용을 약 2시간 만에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3가지 세부혁신사업은 연관성을 찾기 힘들었으며, 학생의 입장에서 실현되어 사업이 운영된다고 했을 때 과연 ‘혁신’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예를 들어 전공 트랙 제도는 공청회에서 제공된 정보와 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보았을 때 트랙이라는 제도가 어떤 점이 혁신적인지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운동건강관리학과와 전문 스포츠관리 트랙에서 선수에 대한 운동 관리나 코칭 등에 관한 교육과정이 새로 등장했으나, 단순히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고 혁신이라고 말하기엔 어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조정호 위원장

렵다. 강의를 가르칠 교수와 가르침을 받을 학생 입장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추가하거나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했던 것인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웠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비전이 미래형 체육인재육성 선도대학교이고, 목적이 미래형 체육인재육성 학사구조 구축이라면 더욱 그 인제가 될 학생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즉, 현재 계획은 학생 친화적이지 못하다. 물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입장과 의견을 끈질기게 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트랙 제도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스포츠 메타버스와 관련한 실무형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는 것도,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도 모두 학생이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는 학생회 학생들을 위주로 안

내되었고, 개학 전이기에 학생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더 열릴 예정이니 그때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고학년이라서 어차피 졸업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말해도 안 바뀌는데?’와 같은 생각으로 의견 내길 주저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많은 교수가 학생과 학교의 미래에 걱정하고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이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공급해 한다. ‘들어주지 않으면 어찌지’라는 생각만 하는 것보다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 의견을 정성스레 표현해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학생 모두에게 묻자는 가지 않을 수 있지만,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청회가 다시 열린다면 공지 사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공청회에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다양한 학생들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수빈 수습기자 20280006@m365.knsu.ac.kr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1. 대학본부는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2. 1월 초 수립하여 2022.2.18.(금) 재정위원회를 서면결의하였고,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 결정된 2021회계연도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총액: 70,598,055천원
3. 자세한 예산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내홈페이지(www.knsu.ac.kr)→ 천마광장→ 공지사항→ 일반공지

2021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 계정별 세입예산 총괄표											
회계연도 : 2021		예산구분 : 대학회계(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								(금액단위 : 천원, %)	
계정	관	과	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70,598,055	100.0%	72,540,434	102.8%	60,281,606	100.0%	56,995,152	-2.7%
		(국가지원금) 등	계정	43,686,913	61.9%	45,903,561	65.0%	34,338,509	57.0%	34,182,045	-4.8%
		이전수입		42,043,659	59.6%	45,903,561	65.0%	34,338,509	57.0%	34,182,045	-8.4%
110		중앙정부이전수입		42,043,659	59.6%	45,903,561	65.0%	34,338,509	57.0%	34,182,045	-8.4%
		세계잉여금		1,643,254	2.3%	-	0.0%	-	0.0%	1,643,254	0.0%
310		순세계잉여금		1,643,254	2.3%	-	0.0%	-	0.0%	1,643,254	0.0%
		(자체수입금) 등	계정	26,911,142	38.1%	26,636,873	37.7%	25,943,097	43.0%	22,813,107	-1.0%
		이전수입		-	0.0%	-	0.0%	-	0.0%	-	0.0%
12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0.0%	-	0.0%	-	0.0%	-	0.0%
		자체수입		14,563,293	20.6%	14,448,744	20.5%	13,879,091	23.0%	12,508,406	0.8%
210		교육활동수입		10,743,224	15.2%	10,743,224	15.2%	10,540,999	17.5%	10,161,599	0.0%
220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171,207	0.2%	175,207	0.2%	171,607	0.3%	171,607	-2.3%
230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60,300	0.2%	160,300	0.2%	160,300	0.3%	160,300	0.0%
240		부담금		111,500	0.2%	111,500	0.2%	145,830	0.2%	145,830	0.0%
250		자산매각수입		20,000	0.0%	20,000	0.0%	20,000	0.0%	20,000	0.0%
260		이자수입		110,000	0.2%	110,000	0.2%	110,000	0.2%	110,000	0.0%
270		제재금수입		-	0.0%	-	0.0%	-	0.0%	-	0.0%
280		기타수입		3,247,062	4.6%	3,128,513	4.4%	2,730,355	4.5%	1,739,070	3.8%
		세계잉여금		11,940,304	16.9%	11,940,304	16.9%	11,940,304	19.8%	10,304,701	0.0%
310		순세계잉여금		11,807,629	16.7%	11,807,629	16.7%	11,807,629	19.6%	10,304,690	0.0%
320		보조금 등 사용잔액		132,675	0.2%	132,675	0.2%	132,675	0.2%	11	0.0%
330		전년도이월금		-	0.0%	-	0.0%	-	0.0%	-	0.0%
		내부거래 및 기타		407,545	0.6%	247,825	0.4%	123,702	0.2%	-	64.4%
410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07,545	0.6%	247,825	0.4%	123,702	0.2%	-	64.4%

2021 대학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											
예산구분 : 2021		예산구분 : 대학회계(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								(단위 : 천원)	
계정	분야	정책사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0,598,055	100.0%	72,540,434	102.8%	60,281,606	100.0%	56,995,152	-2.7%
		02 인적자원운용		25,413,080	42.2%	25,659,103	42.6%	25,216,863	41.8%	25,181,427	-1.0%
		03 교육활동운영지원		4,609,239	7.6%	4,498,721	7.5%	4,403,925	7.3%	3,968,285	2.5%
		04 산학연활동지원		588,020	1.0%	588,020	1.0%	585,058	1.0%	571,851	0.0%
		05 교육복지지원		5,743,825	9.5%	5,691,825	9.4%	5,573,708	9.2%	5,526,161	0.9%
		06 학교교육여건개선		21,811,037	36.2%	23,783,037	39.5%	13,642,420	22.6%	12,921,909	-8.3%
		07 교육행정일반		7,617,983	12.6%	7,616,608	12.6%	6,726,165	11.2%	6,197,401	0.0%
		08 수입대체경비		1,494,932	2.5%	1,498,932	2.5%	1,327,437	2.2%	948,037	-0.3%
		09 보조금 및 지원금		3,319,939	5.5%	3,204,188	5.3%	2,806,030	4.7%	1,680,081	3.6%
		(국가지원금) 등	계정	43,686,913	61.9%	45,903,561	65.0%	34,338,509	57.0%	34,182,045	-4.8%
		02 인적자원운용		19,112,274	31.7%	19,358,297	32.1%	18,846,245	31.3%	18,846,245	-1.3%
		03 교육활동운영지원		2,268,000	3.8%	2,268,000	3.8%	2,268,000	3.8%	2,268,000	0.0%
		05 교육복지지원		4,073,000	6.8%	4,073,000	6.8%	4,073,000	6.8%	4,073,000	0.0%
		06 학교교육여건개선		15,945,000	26.5%	17,917,000	29.7%	6,864,000	11.4%	6,864,000	-11.0%
		07 교육행정일반		2,288,639	3.8%	2,287,264	3.8%	2,287,264	3.8%	2,130,800	0.1%
		(자체수입금) 등	계정	26,911,142	38.1%	26,636,873	37.7%	25,943,097	43.0%	22,813,107	1.0%
		02 인적자원운용		6,300,806	10.5%	6,300,806	10.5%	6,370,618	10.6%	6,335,182	0.0%
		03 교육활동운영지원		2,341,239	3.9%	2,230,721	3.7%	2,135,925	3.5%	1,700,285	5.0%
		04 산학연활동지원		588,020	1.0%	588,020	1.0%	585,058	1.0%	571,851	0.0%
		05 교육복지지원		1,670,825	2.8%	1,618,825	2.7%	1,500,708	2.5%	1,453,161	3.2%
		06 학교교육여건개선		5,866,037	9.7%	5,866,037	9.7%	6,778,420	11.2%	6,057,909	0.0%
		07 교육행정일반		5,329,344	8.8%	5,329,344	8.8%	4,438,901	7.4%	4,066,601	0.0%
		08 수입대체경비		1,494,932	2.5%	1,498,932	2.5%	1,327,437	2.2%	948,037	-0.3%
		09 보조금 및 지원금		3,319,939	5.5%	3,204,188	5.3%	2,806,030	4.7%	1,680,081	3.6%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

1. 대학본부는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2022. 1월초 수립하여 2022. 2. 25.(금) 재정위원회를 서면결의하였고,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 결정된 2022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총액: 56,861,120천원
3. 자세한 예산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내홈페이지(www.knsu.ac.kr)→ 천마광장→ 공지사항→ 일반공지

2022 대학회계 계정별 세입예산 총괄표											
회계연도 : 2022		예산구분 : 대학회계(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								(금액단위 : 천원, %)	
계정	관	과	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56,861,120	100.0%	6,995,152	100.0%	△134,032		△134,032	-0.2%
		(국가지원금) 등	계정	34,135,691	60.0%	34,182,045	60.0%	△46,354		△46,354	-0.1%
		이전수입		34,135,691	60.0%	34,182,045	60.0%	△46,354		△46,354	-0.1%
110		중앙정부이전수입		34,135,691	60.0%	34,182,045	60.0%	△46,354		△46,354	-0.1%
		세계잉여금		-	0.0%	-	0.0%	0		0	0.0%
310		순세계잉여금		-	0.0%	-	0.0%	0		0	0.0%
		(자체수입금) 등	계정	22,725,429	40.0%	22,813,107	40.0%	△87,678		△87,678	-0.4%
		이전수입		-	0.0%	-	0.0%	0		0	0.0%
12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0.0%	-	0.0%	0		0	0.0%
		자체수입		13,667,827	24.0%	2,508,406	21.9%	1,159,421		9,3%	
210		교육활동수입		10,820,303	19.0%	10,161,599	17.8%	658,704		6.5%	
220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176,817	0.3%	171,607	0.3%	5,210		3.0%	
230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60,300	0.3%	160,300	0.3%	0		0.0%	
240		부담금		134,500	0.2%	145,830	0.3%	△11,330		-7.8%	
250		자산매각수입		20,000	0.0%	20,000	0.0%	0		0.0%	
260		이자수입		110,000	0.2%	110,000	0.2%	0		0.0%	
270		제재금수입		-	0.0%	-	0.0%	0		0.0%	
280		기타수입		2,245,907	3.9%	1,739,070	3.1%	506,837		29.1%	
		세계잉여금		9,057,602	15.9%	10,304,701	18.1%	△1,247,099		-12.1%	
310		순세계잉여금		9,057,551	15.9%	10,304,690	18.1%	△1,247,139		-12.1%	
320		보조금 등 사용잔액		51	0.0%	11	0.0%	40		363.6%	
330		전년도이월금		-	0.0%	-	0.0%	0		0.0%	
		내부거래 및 기타		-	0.0%	-	0.0%	0		0.0%	
410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0.0%	-	0.0%	0		0.0%	

2022 대학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예산구분 : 2022			예산구분 : 대학회계(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						(단위 : 천원)		
계정	분야	정책사업	예산		전년예산		전년대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56,861,120	100.0%	56,995,152	100.0%	△134,032	-0.2%			
		02 인적자원운용	24,817,337	43.6%	25,181,427	44.2%	△364,090	-1.4%			
		03 교육활동운영지원	4,042,816	7.1%	3,968,285	7.0%	74,531	1.9%			
		04 산학연활동지원	594,653	1.0%	571,851	1.0%	22,802	4.0%			
		05 교육복지지원	5,583,218	9.8%	5,526,161	9.7%	57,057	1.0%			
		06 학교교육여건개선	8,828,062	15.5%	12,921,909	22.7%	△4,093,847	-31.7%			
		07 교육행정일반	9,062,759	15.9%	6,197,401	10.9%	2,865,358	46.2%			
		08 수입대체경비	1,742,317	3.1%	948,037	1.7%	794,280	83.8%			
		09 보조금 및 지원금	2,189,958	3.9%	1,680,081	2.9%	509,877	30.3%			
		(국가지원금) 등 계정	34,135,691	60.0%	34,182,045	60.0%	△46,354	-0.1%			
		02 인적자원운용	19,082,335	33.6%	18,846,245	33.1%	236,090	1.3%			
		03 교육활동운영지원	2,184,501	3.8%	2,268,000	4.0%	△83,499	-3.7%			
		05 교육복지지원	4,073,000	7.2%	4,073,000	7.1%	0	0.0%			
		06 학교교육여건개선	3,917,080	6.9%	6,864,000	12.0%	△2,946,920	-42.9%			
		07 교육행정일반	4,878,775	8.6%	2,130,800	3.7%	2,747,975	129.0%			
		(자체수입금) 등 계정	22,725,429	40.0%	22,813,107	40.0%	△87,678	-0.4%			
		02 인적자원운용	5,735,002	10.1%	6,335,182	11.1%	△600,180	-9.5%			
		03 교육활동운영지원	1,858,315	3.3%	1,700,285	3.0%	158,030	9.3%			
		04 산학연활동지원	594,653	1.0%	571,851	1.0%	22,802	4.0%			
		05 교육복지지원	1,510,218	2.7%	1,453,161	2.5%	57,057	3.9%			
		06 학교교육여건개선	4,910,982	8.6%	6,057,909	10.6%	△1,146,927	-18.9%			
		07 교육행정일반	4,183,984	7.4%	4,066,601	7.1%	117,383	2.9%			
		08 수입대체경비	1,742,317	3.1%	948,037	1.7%	794,280	83.8%			
		09 보조금 및 지원금	2,189,958	3.9%	1,680,081	2.9%	509,877	30.3%			

쇼트트랙 박장혁 동문 단독 인터뷰

부상 투혼,
굳은 의지가
맺은 결실

Q. 안녕하세요 박장혁 선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생 박장혁입니다.

Q. 쇼트트랙 5,000m 계주 은메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개인전에도 출전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도 팀 동료들이랑 같이 잘 매듭 지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경기를 했습니다.

Q. 계주는 단체전인 만큼 4명의 선수의 합이 중요하고 개인전보다도 더 많은 연습량이 필요했을 거 같습니다.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일단 콕윤기 선수가 팀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계주에 대한 이해도나 경합이 워낙 많으셔서 저희 선수들이 기술적인 부분 등을 많이 배우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Q. 이번 올림픽이 첫 출전이신데 어떤 각오로 올림픽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모든 선수가 꿈꾸는 큰 무대이다 보니 까 집중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월드컵이나 국내대회 같은 일반적인 경기에 출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Q. 귀국하신 후 많은 점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A. 신기할 정도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많이 찾아주시고 지나가다가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고 잘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Q. 경기 중 갑작스러운 큰 부상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계주 경기에 출전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부상은 호전됐나요?

A. 부상 당시에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소속팀 코치님과 주위에 선수들이 저를 위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콕윤기 선수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 줬어요. 손이 계주에서 너무 중요한 부위여서 팀원들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계주 종목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콕윤기 선수가 살살 밀어도 되고 한 손으로 밀어도 되고 터치만 하고 가도 되니까 무조건 타라, 안되는 부분은 본인이 메워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출전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은 한국에 들어온 후에 다시 봉합 수술을 받아서 부상은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예요.

Q. 본인의 주 종목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종목은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어느 종목보다 스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장벽적인 부분이나 운동하는 부분에서 가장 예민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종목이면서도 동시에 보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스릴이 넘쳐서 재밌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Q. 쇼트트랙 안에서도 단거리, 장거리 등 세 부종목이 있는데, 그 중 박장혁 선수의 주 종목은 무엇인가요.

A. 국내대회에서 시합할 때는 500m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국내에선 500m가 주 종목이었어요. 근데 국제 대회를 나가니까 외국 선수분들이 피지컬이나 순발력 부분이 너무 좋아서 국제 대회에서는 500m보다 1,500m가 주 종목이 되었어요.

Q.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 중 역대 최장신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수로서 본인

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기술적인 면에서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운동적인 면에서는 ‘이게 내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선수로서 저의 강점이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평소엔 경기 분석을 많이 하고 다른 선수들의 경기 영상도 많이 찾아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Q. 경기 전 본인만의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징크스나 루틴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큰 습관은 없어요. 작은 습관이 있다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헬멧을 톡톡 치곤해요. 처음에는 헬멧이 잘 조여졌는지 확인차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점점 스스로 잘하자는 의미로 느껴져서 그 이후로 경기 전에 헬멧을 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Q. 많은 빙상 종목 중 쇼트트랙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제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저보다 먼저 쇼트트랙 종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타는 것을 보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너무 어릴 때다 보니 빙상 종목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쇼트트랙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서 쇼트트랙 종목을 선택하게 됐어요.

“

저에게 쇼트트랙이란
가장 위험하고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스릴있고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

Q. 훈련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A. 재학 당시에도 쇼트트랙 종목이 빙상장이라는 실내에서 훈련하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 ‘쇼트트랙 운동이 많이 힘든 종목인가?’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희 종목이 다른 어떤 종목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훈련량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빙상장에서 훈련하니까 시원하지 않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시원한 곳에서 훈련해도 땀이 많이 날 정도로 훈련 강도가 높아서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Q. 슬럼프가 온 적은 없었나요? 있었다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A. 기억날 정도로 큰 슬럼프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12달 중 1, 2달 정도는 정말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슬럼프가 오면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컨디션이 좋았을 때의 훈련 영상이나 경기력이 좋았던 경기 영상들을 보면서 그때의 감을 빨리 찾아가려고 노력해요.

Q. 출전 전이나 경기 도중 예측불허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본인만의 대처 방법이나 루틴이 있나요?

A. 저는 경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당황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최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그리고 경기에 임하다 보면깐 그런 부분들이 대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도 좋지 않다는 걸 몇 번 느끼기도 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Q.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본인은 어떤 학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정말 특별하지 않은 일반 학생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학교생활을 즐기고 다른 부학생들과 어울리기보다 저희 종목 학생들이랑만 주로 어울리면서 훈련에 집중했어요.

Q. 그렇다면 1학년 때 체육학과 장기자랑에 관한 에피소드에 대해 말씀해주시 수 있나요?

A. 다른 방송에서도 그 영상들을 보시고 당시 췌던 춤을 보여달라 하셨는데 절대 보여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 그 영상을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장기자랑이 빙상부의 문화여서 저도 춤을 추게 되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화제가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가장 창피한 흑역사라고 생각합니다.

Q. 해당 장기자랑 영상이 팬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엄청난 칼 박으로 슈퍼주니어와 트와이스의 안무를 완벽히 소화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A. 워낙 춤추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마지못해 참여하게 된 거였는데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활동이었고 다 같이 하다 보니 연습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웃음)

Q.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추억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A. 너무 뻘하지만 오랜 시간 있었던 공간이다 보니 빙상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 당시 신축 기숙사에 입소하게 되어 좋은 시설에서 편히 지낼 수 있어서 기숙사도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Q. 만약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 것 같나요?

A.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중, 고등학교 시절엔 운동하지 않았으면 공부를 잘했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크면서 철이 들고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니, 운동보다 공부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는 쇼트트랙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마 무슨 종목일진 모르겠지만 운동선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Q. 쇼트트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나요?

A.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종목 같아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쇼트트랙은 가장 위험하고 어렵지만 가장 재미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타는 스케이트의 날이 매우 날카로워서 그로 인한 부상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골절과 같은 부상이 나오기도 해요. 동시에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어려운 종목이에요. 하지만 타면서도 진짜 재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하는 맛이 느껴져요. 또 쇼트트랙 경기를 봐주시는 분들도 스릴 있고 재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박장혁 선수를 보고 쇼트트랙 선수를 꿈꾸는 새싹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한국체육대학교 꿈나무 후배들과 재학생 학우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학교에 다닐 때부터 많이 느꼈던 건데 우리 학교만큼 훈련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다른 체육시설들이 문을 많이 닫다 보니 다른 빙상 종목 팀들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교심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재학생분들도 학교의 소중함을 알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운동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롤모델로 삼고 운동을 하기보다는 저보다 훌륭한 선수분들을 롤모델로 삼고 운동을 하면서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길 응원합니다.

방지혜 수습기자 202090020@m365.knsu.ac.kr

학보사·교내 방송국이 공동으로 2월 27일 올림픽연구센터에서 박장혁 동문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강 신청 및 학사 운영 이슈, 그 속에 숨겨진 반복적인 불통

2021년은 ‘불통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생과 학교 사이의 소통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2022년에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체대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뿌리 깊게 박힌 악습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학생과 학교 간 마찰이 발생했다. 황당한 수강신청 시스템과 낮은 학사 운영 공지에 학생들이 분노한 것이다. 올해부터 변경된 수강신청 방식은 큰 혼란을 야기했고, 수강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학사 운영방식이 결정되지 않자 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본보는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을 파헤치고 논란 속 숨어있는 소통의 부재를 주의 깊게 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미뤄지는 새 학기 준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개강 전 자신의 일정에 맞는 수업계획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수강신청 전에 대면 여부를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학 동안 진행했던 활동이나 일을 정리하고 강의 시간과 일정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는 수강신청일이 다가올 때까지 학사 운영에 대해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 결국 학생들은 수업방식을 예측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다. 지방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대면수업이 확정된다면 서울에 머무를 방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개강을 약 3주 남긴 시점에서 급하게 방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2월 중순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시기이기에 지방 학생들은 더욱 난감한 입장이었다.

학생 의견 반영 안 된 수강신청 시스템

지난 2월 10일, 대학생 커뮤니티 서비스 ‘에브리타임’에서는 수강신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상은 바로 변경된 수강신청 방식이었다. 작년까지는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신청이 가능했다. 덕분에, 타학년 학생들도 자학년에 배정이 안된 강의를 신청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시간표를 계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학년을 구분하여 강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강신청 방식이 변경되었다. 갑작스럽게 달라진 시스템에 학생들은 당황스러워했다. 특히 졸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해당 변경사항이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지난 1월 28일, 학교는 홈페이지에 수강신청 관련 공지사항

을 게시했다. 공지에는 변경된 수강신청 방식에 대한 자세한 취지나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단순히 날짜와 시간만을 알리는 통보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별도의 설명회나 간담회는 마련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수강할 수밖에 없었다.

출발선 다른 선착순

변경된 수강신청 방식은 일부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양상을 보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교 사정상 일부 수업에만 다수의 인원을 배정할 수 없기에 인원수를 제한하게 된다. 학생들은 듣고 싶은 강의를 차지하기 위해 선착순이라는 공평한 방식으로 수강 신청에 참여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강신청은 기회의 평등이 상실된 모습을 보였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된 1학기 시간표를 보면 대부분의 교양 수업이 저학년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변경된 수강신청 방식에 따르면 저학년 학생들이 교양 수업 신청에 대한 우선권을 얻게 된다. 실제로 10일에 진행된 1차 수강신청 기간(자과, 자학년)에 대부분의 교양 수업은 인원이 마감된 상태였다. 고학년 학생들은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교양 수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졌다. 교양 학점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하지 못 하는 4학년 학생들이 속출한 것이다. 매년 수강신청 기간에는 졸업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문제가 심각했다. 교양 수업을 차지하는 4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과목명	학 년	자과 신청 (2학년 신청 현황)	타과 신청 (전학년 신청 현황)
한국어영문장	2	40/40	0/5
한국문학과세계문학	2	23/40	0/5
비즈니스영어회화	2	25/25	0/5
미디어영어	2	35/35	0/5
토익입문	2	40/40	0/5
SW융합창의설계	2	35/35	0/5
범의이해	2	40/40	0/5
미디어스포츠-엔터테인먼트	2	40/40	0/5
영화속의과학	2	40/40	0/5
문화인류학기행	2	40/40	0/5
자아형성을위한긍정심리학	2	40/40	0/5
멀티미디어기본과활용	2	36/36	0/5
한국사회와다문화	2	50/50	0/5

출처 : 총학생회

2022학년도 1학기 2학년 교양 과목 수강신청 현황(생활체육대학, 스포츠문화예술대학).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저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이미 마감되어, 졸업을 앞둔 4학년들이 교양 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학생을 위한 학습권 보장과 원활한 대학 수업 마련해야

상황을 지켜보던 With:u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총학은 1차 수강신청이 끝나고 하루 뒤, 입장문과 함께 수강신청과 학사 운영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수강신청 실태조사는 주된 피해층인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3일간 진행된 조사에는 약 80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총학은 실태조사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요구안을 작성했고 동시에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SNS와 에브리타임에 게시했다. 제시된 요구안은 총 2가지로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문제 요구안]과 [2022학년도 1학기 수업방식 및 방역 대책 고지 촉구 요구안]이다.

[수강신청 문제 요구안]에서는 변경된 수강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학은 학년을 구분하는 수강신청 방식으로 인해 고학

년은 교양 수업 없이 전공 수업으로만 학점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수강신청 실태조사 결과와 2021학년 1학기 수강신청을 비교 분석한 자료 등을 제시하며 글을 이어갔다. (자료는 총학생회 SNS에서 확인 가능) 총학은 기존의 수강신청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취지에 긍정적인 반

응이었다. 하지만, 총학은 변화 과정에서 몇몇 학생들이 차별받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고 폭넓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 원활한 대학 수업을 영위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 근거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총학생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강신청 문제 학생 요구안

1. 단과대학별로 3학년이 신청 가능한 교양과목을 추가 편성하라.
2. 단과대학별로 4학년이 신청 가능한 교양과목을 추가 편성하라.
3. 4학년이 선순위 신청 가능한 ‘영어연습’ 교양 필수 과목을 추가 편성하라.
4. 막학기 학생 대상으로 미이수과목 수강 인원을 확대하여 수강조치하라.
5. 1학기 수강신청 이후 2학기 수강신청에 대한 해결책을 ‘학생’과 논의하고 소통하라.
6. 2학기 수강신청부터 생활체육대학(스포츠문화예술대학) 2학년 교양과목 타과인원을 폐지하고 자과인원으로 통합하라.
7. 신입생 수강신청 전까지 생활체육대학(스포츠문화예술대학) 1학년 교양과목 타과인원을 자과인원으로 조속히 이관하라.

출처 : 총학생회

총학, “학교의 대면수업 강행은 무리한 결정”

[수업방식 및 방역 대책 고지 촉구 요구안]에서 총학은 본교의 낮은 학사 운영 고지 문제점을 꼬집었다. 총학은 국/공립대학 28곳을 조사한 결과 1학기 수업방식을 고지하지 않은 대학은 본교를 포함해 단 2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조명하면서 전면 대면 수업 강행은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총학은 3일간 진행된 수업방식 및 평가 방법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내세웠다. (자료는 총학생회 SNS에서 확인 가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작년 운영 방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설문문에 참여 한 학생 중 52%가 ‘전면 비대면 수업’을 원했다.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자유로운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학기에 적용될 성적 평가 방법을 묻자, 55%가 ‘대면/비대면 여부와 무관하게 절대평가’를 선택했다. 총학

은 위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추가했다. 상대평가 진행 시 20학번들의 경우, 해당 평가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리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대면 운영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업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해 완화된 상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학은 세부적인 방역 대책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다수인 우리 대학의 특성상 대면 수업 강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근거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업방식 및 방역대책 고지 촉구 학생 요구안

1. 20명 이상 교양과목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하여 집단감염을 최소화하라.
2. 20명 이상 전공과목수업(실기과목 제외)을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하여 집단감염을 최소화하라.
3. 실기과목은 희망자에 한하여 대면수업으로 시행하고, 이외 학생들에게 녹화 강의를 제공하여 수업 만족도를 제고하라.
4. (학사 운영방식)을 매 학기 초 1회 결정한 후 변동 없이 한 학기동안 유지하고, 학사 운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4주전 공지하라.
5. 비대면 수업 진행 시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라.
6. 이론 대면 수업 진행 시 A(+)학점 40% 이상, B(+)학점 40% 이상의 완화된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라.
7. 대면 수업 진행 시 확진자 발생 대응방안 및 방역대책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라.
8. 대면 수업 후 곧바로 비대면 수업이 있는 경우를 대비, 강의실 외 학습공간을 마련하라.

출처 : 총학생회

대학본부, “수강신청 추가 보완책 유지 및 비대면 수업 할 것”

총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요구안을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대학본부가 요구안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를 염려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바로 ‘학생 공동대응’이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묵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후 총학은 대응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학부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공동대응을 준비했다. 대학본부는 이를 의식한 것인지 요구안 전달 직후, 이틀에 거쳐 답변서를 내놓았다. [수강신청 문제 요구안]의 답변서에는 요구

에 따른 조치 사항이 주된 내용을 이뤘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4학년 졸업 필수 학점 미이수에 대해 대학본부는 작년 2학기 수강신청 시에 진행한 추가 보완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까지 추가 보완책을 유지하고 수강신청 문제로 학생들이 졸업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보완책이란 졸업 필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4학년 학생들이 추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다음으로 대학본부는 [수업 방식 및 방역

대책 고지 촉구 요구안]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2022학년도 1학기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계획’과 ‘2022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운영 방법 안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학사 운영 방식에 대해 대학본부는 이론 및 실기 수업을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해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적평가 방식의 경우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업학적팀장 인터뷰

“실기 수업 대면 전환 가능,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후 사전 공지할 것”

대학본부는 답변서 제출 이후 앞으로 진행될 학사 운영에 대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대체 학사 운영 고지가 늦어진 이유는 뭘까?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위 지침에 따라 대학본부가 신속히 회의를 진행을 했다면 빠른 공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무엇보다 대면 전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보사는 학사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정리해 수업학적팀 박유미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학사 운영 고지가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면수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월 말부터 준비하였으나, 교원 및 학생 의견 수렴, 의사결정 절차(교무회 등)를 진행하느라 예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공지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전 인터뷰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업운영 방식 결정 당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졌고, 기숙사 및 학내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면 수업을 확대하려던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전문실기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추후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Q. 학사 운영을 결정하기 전, 대면 수업을 위한 세부적인 방역 지침과 확진자 조치 매뉴얼 등이 자세히 마련되어있었나요?

A.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등 교육부 지침(해당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에 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면수업 확대가 결정되면, 교육부 가이드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우리학교 실정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Q. 수업운영 방식을 논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참고하나요? 참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지난학과와 이번학기 총학생회가 진행한 수업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다만, 수업운영 방식은 학생 뿐 아닌 학내 구성원의 의견과, 학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Q. 학기 중 대면 수업 전환 가능성이 있나요?

A. 오미크론 확산세가 잦아들고, 위드코로나 분위기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실습과목은 대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소통의 공존은 발전의 열쇠

교육부의 지침에서는 학기 중 수업방식을 변경할 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실현된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강신청과 학사 운영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학교가 학생과 소통하지 않았기에 학생의 권리가 상실된 것이다. 작년부터 역설했던

상호간의 소통은 무의미했고 제자리걸음만 할 뿐이었다.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에 애정을 느끼고 학교의 발전에 힘쓴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다. 이처럼 학생과 학교, 권리와 소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 모두 이를 인지해 서로를 반추추며 더 높은 위치로 도약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장재인 편집장 202090032@m365.knsu.ac.kr

차갑게 식은 경기장, ‘하얀 코끼리’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평창 올림픽의 일부 경기장이 지금은 고요히 주인을 기다리는 하얀 코끼리가 되었다. 이렇게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경기장을 말하는 ‘하얀 코끼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전 세계에 펼쳐질 현실이다.

하얀 코끼리, 왜 태어나는 것일까

하얀 코끼리(White elephant)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이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나 막상 활용할 곳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고대 동남아 시아에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은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하사했다는 설화에서 유래했다. 왕에게 코끼리를 하사받은 신하는 코끼리에게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어 키우는 비용만 많이 들어 결국 파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국제 스포츠 대회들을 개최하면서 ‘하얀 코끼리’가 되어버린 경기장들이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평창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해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 아시안 게임 경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2002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었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약 53,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기장이다. 그러나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끝난 후 경기장은 열기를 이어갈 수 없었다. 사실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도 겨우 좌석을 채웠으니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후 부산 아이kons(현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이 홈구장으로 댔했으나 홈경기조차 온전히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2017년엔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구덕운동장을 본격적인 홈구장으로 사용하였다. 올해에 한해선 구덕운동장의 공사로 임시 홈구장으로 사용하긴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1부 리그인 K1도 구단과 연맹이 적자를 겪은 것을 생각하면 크게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마냥 부산시가 경기장을 가만히 두려고 한 것은 아니다. 각종 콘서트,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경기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적자 탈출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경기장이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기 힘들게 만들었다. 2018년 국가대표 축구팀 A매치를 유치했으나 직전에 열린 콘서트로 인해 잔디의 상태가 축구 경기가 열리기에 좋지 않았다. 결국 해당 매치는 다른 경기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이후 2019년 동아시안컵 일본과의 경기가 이곳에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친 후 더 이상 경기를 개최할 수 없었다. 콘서트와 페스티



콘서트 후에 훼손된 잔디 출처: 오마이뉴스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경기장들도 비슷한 상황에 부딪쳐있는 곳이 다수다. 올림픽, 아시안 게임과 같은 큰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했으나 끝난 이후엔 그 관심이 급격히 떨어져 비주류 스포츠는 물론, 주류 스포츠 이벤트들 정거적으로 열기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같이 콘서트와 페스티벌을 열어 경기장 홍보와 수익을 꾀하기도 하지만, 경기장의 원래 용도에 부합하는 환경이 오히려 망가져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친다. 그사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런 하얀 코끼리 경기장을 애물단지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305억을 들여 철저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앞으로 들 유지비를 지자해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단 3주만 경기하는 경기장?

보통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약 2주간 개최된다. 올림픽은 이어 패럴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약 3주라고 볼 수 있다. 3주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나라를 알리고,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경기장은 꼭 필요한 장소임은 틀림없다. 누군가는 경기를 보며 미래를 꿈꾸고, 감동을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경기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노력의 가치를 보여주고, 국적을 넘은 우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향하는 관심은 3주가 지나면 사라지는 기간제다.

아무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줄 수 있다고 해도 현실은 비용 앞에서 녹색지 않는다. 앞서 여러 번 언급한 유지비가 가장 큰 이유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전체에 매년 평균 40억 원이 유지비로 투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경기장 유지에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올해는 평균보다 높은 54억 5,300원의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1년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4억 5,300만 원, 강릉하키센터 4억 1,800만 원, 슬라이딩 센터 2억 3,400만 원의 대관 수입이 있었으나 스키점프센터, 바이애슬론센터는 별도의 대관 수입이 없었다. 2020년보다 대관 수익이 8%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었으나 유지비로 투입되는 40억 원엔 미치지 못했다. 결국, 대관을 제시하여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수익이 꾸준히 올라도 손실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다. 유지를 위해 예산을 늘려 배정할 수도 없다.

유지비 문제는 다른 고민을 만들었다. 바로 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으로써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1988 서울 하계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경기장들이 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은 공사 전에도 공연장으로서 다수 활용되었으나 KSPO DOME로 바뀐 뒤 본격적인 다목적 공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체육행사를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 일반행사 목적 대관보다 약 3,000,000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이 저렴이 있음에도 KSPO DOME의 대관 일정에 스포츠 행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일정보에도 ‘평창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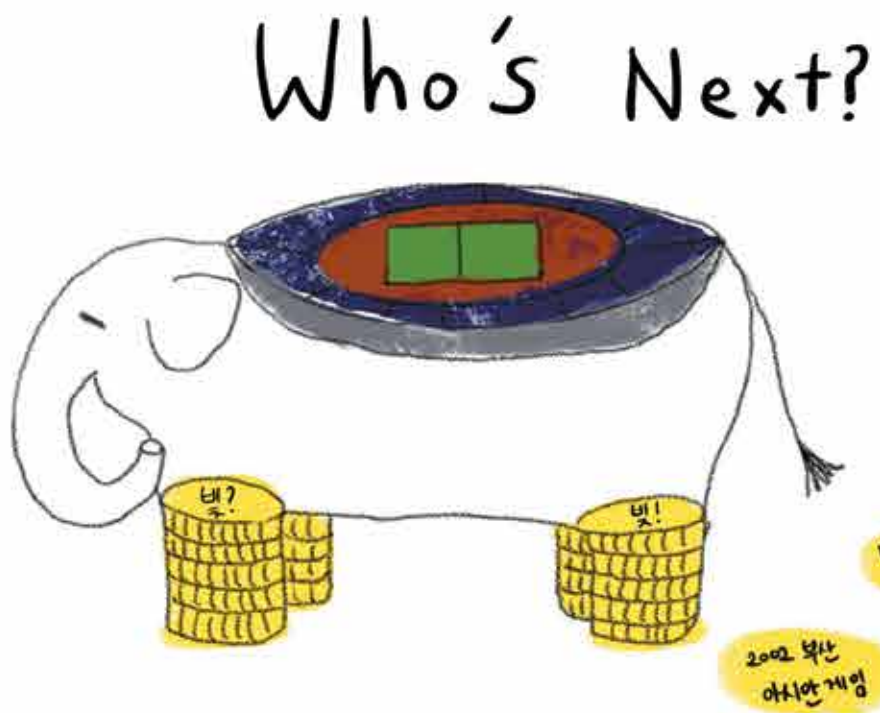
출처: 강원도민일보

계올림픽, 패럴림픽 1주년 기념 대축제’와 ‘올댓 스케이팅 2019’만 열렸고, 이 두 행사도 경기나 체육 행사라기보단 문화예술행사에 가깝다. 체육행사 일정 우선 배정이라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공연장으로 인기가 상당한 KSPO DOME이나 SK 핸드볼 경기장은 제외다.

과도한 시설 경기장 건설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예도 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대부분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였다. 건설하는 과정에선 5천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갔다. 습지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새로 경기장을 짓고 공황 및 도로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12조 원가량 발행했으나 올림픽 이후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빚만 남았다. 이에 더해 매년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나가노 시민들이 세금을 건디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이들이 발생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올림픽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에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개최 반대 시위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 19 탓에 무관중으로 진행되어 입장권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새로운 경기장들을 건설하면서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올림픽 이후 경기장들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빅 스포츠 이벤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국 선수가 메달을 땀다고 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국제 대회를 보지 않는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스포츠가 지속하다 보면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같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



황금 코끼리가 된 하얀 코끼리

대부분의 빅 스포츠 이벤트 경기장들이 하얀 코끼리로 남았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었다. 바로 2002년 열렸던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경기장들이다. 대표적으로 많이 소개된 경기장은 폴장을 점막한 스키 점프 경기장이다. 간이 폴장을 스키 점프대 아래 설치하여 여름에도 사람들이 스키 점프를 즐길 수 있다. 겨울철에도 스키 관광지로 유명한 솔트레이크시티를 사람들이 여름에도 찾을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다.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스키 슬로프는 썰매장으로 탈바꿈하여 여름에는 잔디 썰매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썰매에 바퀴를 단 봅슬레이 체험 역시 인기다. 경기장을 변형하지 않고 사용하는 곳도 있다. 빙판 위에선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스피드 스케이팅 수업을 배울 수 있고, 피겨 스케이팅도 개인 레슨이나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그리고 하키, 컬링을 수준에 맞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빙판을 둘러싼 실내 트랙 위에서 할 수 있는 달리기 프로그램이 있다. 눈이 쌓인 산과 들만에서 스키를 신고 코스를 완주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XC 스키)와 바이애슬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



유타 올림픽 VR체험 중인 관람객 출처: 세계일보

이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장소임을 환기하고 VR 기기를 이용해 더욱 즐겁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장소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직원 중 지역에 해당수 담당수 근무하고 있다. 더불어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 리조트를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솔트레이크시티 경기장은 지역 경제까지 상생하는 영향을 가져왔다.

솔트레이크 올림픽 경기장이 황금 코끼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전에 올림픽 이후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분명하다. 기존 경기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경기장을 짓지 않고 보수하여 사용했고, 11개 경기장 중 3개만 신축했다. 경기장 외에도 필요한 건물 중 일부는 가건물로 만들었다. 근처 유타대학교와 협력한 부분이 돋보인다. 올림픽 선수촌을 짓는 대신 근처 유타대학교의 기숙사를 활용했고 계/폐회식이 이루어졌던 스타디움은 유타대학교가 소유 및 운영하여 유타대학교 미식 축구팀의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 스포츠 단체를 합류시킨 것도 인상적이다. 사후에도 경기장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 스피드 스케이팅 본부를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정부나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이렇게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사용된 경기장들은 우리에게 전밀한 동계 스포츠부터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까지 이색적 하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이를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단순히 일반인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체험 프로그램으로만 있는 건 아니다. 하키, 스피드 스케이팅, 축구, 미식축구, 농구 등 팀들에게 대관해주고 일부 팀들은 홈경기터로 이용하기도 한다. 또,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를 열고 2002 동계올림픽 박물관과 스키박물관을 지어 관광객들에게 이곳

축제의 폭속 소리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이어지려면

처음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지 약 13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의 130년을 위해 하얀 코끼리 시설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의식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올림픽 후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개최국에 계획을 묻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얀 코끼리 시설을 줄여야 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정 가이드라인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행동과 생각을 하지 않을 순 없다.

하얀 코끼리 시설의 문제는 크게 2가지다. 비용, 스포츠 장소로 활용도다. 먼저 비용적인 측면에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신축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큰 대회를 개최해본 나라가 다시 개

만약 적절한 경기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올림픽은 ‘본리’라는 키워드를 이용 포츠 단체를 합류시킨 것도 인상적이다. 사후에도 경기장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미국 스피드 스케이팅 본부를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으로 이전했다.

2012 런던올림픽 기존 시설 활용 경기장	
축구	올드 트래포드 (Old Trafford, Manchester)
수타	그리니치 파크 (Greenwich Park)
양궁	로드 크릭 그라운드 (Lord's Cricket Ground)
태권도	엑셀 런던 (ExCeL, London)
배구	얼스 코트 (Earls Court)
배드민턴	웬블리 아레나 (Wembley Arena)
트라이애슬론	하이드 파크 (Hide Park)
비치발리볼	호스 가드스 패레이드 (Horse Guards Parade)

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농구장은 해체하여 그다음 번 하계올림픽 대회였던 리우 올림픽에서 재사용되었다. 평창 올림픽에선 모틀러 건축 방식을 택해 취재진이 머무는 미디어 레지던스를 지었다. 모틀러 건축 방식은 침실, 욕실, 거실 등을 블록처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올림픽이 끝나면 다른 필요한 곳에 옮겨 조립할 수 있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꼭 다른 대회의 숙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설 내에 숙소가 필요한 제니현장 같은 곳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앞으로 재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물론, 더는 이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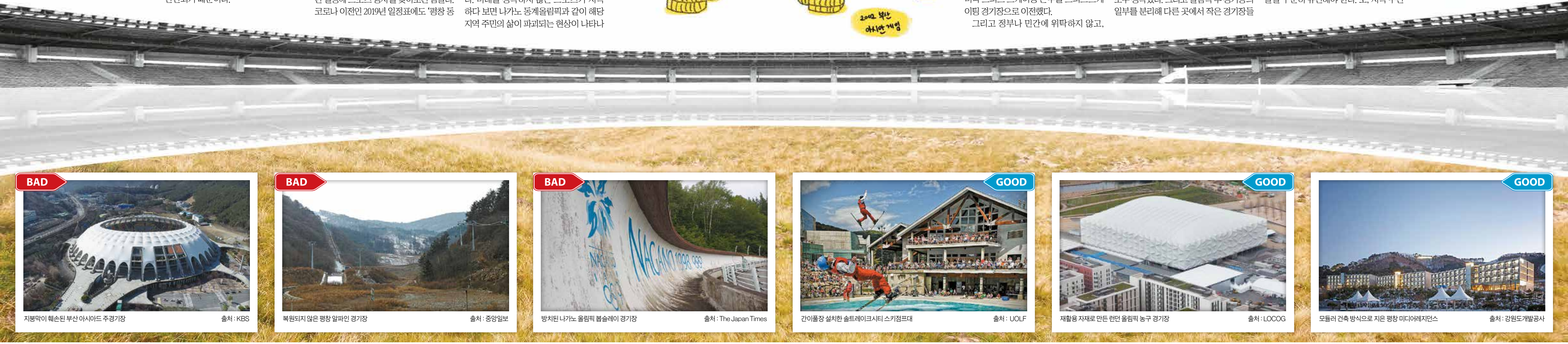
시설을 만드는 비용 문제가 있다면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 문제도 있다. 아무리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멀리 있다면 꺼려지기 마련이고, 가장 가까운 곳이라도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면 방문하지 않는다. 거리와 상관없이 어떤 스포츠를 체험하기 위해 떠오르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과 다른 특색이 있어야 한다. 인터리어와 조경에 중점을 두어 사진을 찍으러 오고 싶은 장소가 되거나, 앞서 언급한 솔트레이크 시티의 스키 점프대 폴장처럼 이곳에서 만 할 수 있는 이색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거나, 혹은 체험객만 구해할 수 있는 이색 상품을 판매함과 같이 해당 장소로 사람들이 꾸준히 유인해야 한다. 또,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체험 티켓이나 대관료를 할인해주는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가까운 위치에 살기에 정기적인 고객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스포츠 장소로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경기장이 어떤 스포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인기 종목 경기장으로 지어졌거나, 인기 종목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용도로 변경될 수 있다면 대관을 해주거나 해당 종목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의 체험을 유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른 용도로 쉽게 바꾸기 힘든 특수 종목 경기장들이다. 종종 해당 종목 선수들의 훈련지로 이용되는 것 외에도 쉽사리 방관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때 ‘패키지’를 활용하면 비인기 종목을 체험하기 쉬워질 수 있다. 우리가 해외 패키지여행을 갈때처럼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 모두 체험하는 코스나 포괄된 패키지를 만드는 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올림픽이 끝나면 다른 필요한 곳에 옮겨 조립할 수 있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꼭 다른 대회의 숙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설 내에 숙소가 필요한 제니현장 같은 곳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앞으로 재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물론, 더는 이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빅 스포츠 이벤트 경기장을 지을 때 개최국이 지속가능한 스포츠를 위한 계획과 이행을 실행함에 있지만, 열심히 일하여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감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평생 나와 관련 없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버려지는 경기장들이 늘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지워진다. 제대로 활용되었다면 지역민들에게 운동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현재의 나를 피우려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스포츠와 웰수 없는 세상에 하얀 코끼리가 스포츠의 가치를 회미하게 만드는 것을 두고 보서는 안 된다. 이미 수많은 하얀 코끼리가 스포츠의 가치를 가렸다. 그렇기 때문에 빅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는 당시에 열광하며 환호하는 것도 좋지만, 그 환호가 쓸쓸한 정적만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수빈 수습기자 202080006@m365.knsu.ac.kr



지붕막이 훼손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출처: KBS



복원되지 않은 평창 알파인 경기장 출처: 중앙일보



방치된 나가노 올림픽 봅슬레이 경기장 출처: The Japan Times



간이폴장 설치한 솔트레이크시티 스키점프대 출처: UOLF



재활용 자재로 만든 런던 올림픽 농구 경기장 출처: LOCOC



모틀러 건축 방식으로 지은 평창 미디어레지던스 출처: 강원도개발공사

한복도, 김치도 다 중국 것? 중국의 문화침탈, 그 진실은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의 문화로서 소개된 한국의 문화들

지난 2월 4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로 둔갑한 장면이 연출되어 논란이다. 중국 내 56개의 민족대표가 오성홍기를 다 같이 게양하는 장면에서 우리나라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포함되었다.

또한 개회식 현장에서 재생된 홍보영상에서는 조선족의 문화로 삼고무, 사물놀이, 한과, 강강술래, 김치, 김장 문화 등이 담겨있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중국의 문화침략 일환이며 중화 패권주의적인 행위’라는 의견과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조선 전통 복장을 입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문화침략으로 보는 것은 반중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한국 외교당국이 해당 논란과 관련한 국내의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자 중국 측은 “개회식 공연에는 조선족 등 중국 내 여러 소수민족이 전통 복장을 그대로 착용하고 출연했다.”라며 “한국이 문화적으로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앞세워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표현하는 중국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홍보된 조선족의 문화는 조선족과 관련 없는 현대 한국식 문화라는 점이다. 논란이 된 조선족 여인이 입은 한복은 최근 한국에서 현대인에게 맞게 개량하고 새로 디자인한 한복이다. 또한 개회식 영상에 담긴 사물놀이도 1978년에 한국에서 창시되었고 한국인 창시자도 분명히 있지만, 중국은 이를 조선족의 전통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인 문화침탈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이유다. 2000년대 초 동북공정(중국 동북지역 역사와 한국사를 왜곡해 중국의 시간적, 공간적 영토를 넓히는 정책으로 고구려와 발해 등과 한국의 관계성을 끊음을 목적으로 한

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한국 문화와 역사를 예측화하려는 시도가 김치, 한복 등과 같은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의 열풍으로 인한 미디어콘텐츠 시장까지 꾸준히 있었다는 것이 해당 주장의 설명이다.

세 번째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에서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라는 근거를 들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지속해서 중국의 문화 및 역사로서 홍보 매체에 노출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은 엄연히 정치적이고 문화제국주의적 행태로서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세계적이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중국의 억지스러운 문화침략이 축적되어 노출되면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한국문화 대부분은 중국 것이고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존재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사례가 이후에 동일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오성홍기를 게양하고 있다.

역사를 넘어서 한국의 문화까지 넘보는 중국

중국이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자국의 문화로 예측시키려는 움직임은 이번 올림픽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말한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고자 하고 조선족의 정체성을 대륙에 편입하고자 한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김치나 한복, 한글, 미디어콘텐츠, 심지어 BTS나 김연아 같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한국인들이 사실은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이

자국 내에서 유행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형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기재하고 김태희가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도용했던 사례들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이 편집 가능한 중국 위키피디아에서는 세종대왕, 김구, 윤동주, 김연아, BTS가 한민족(한국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민족)이 아닌 조선

족으로 표기되며 이는 곧 중국인임을 의미한다. 트위터와 같은 SNS나 유튜브와 같이 전 세계적인 매체에서 중국인 누리꾼들이 해당 주장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이러한 중국인 누리꾼들의 갑작스러운 여론 조작 활동이 그저 일반인의 자발적인 애국주의적 참여가 아닌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은밀한 지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JTBC는 영국 옥

스퍼드대학교 연구팀으로부터 중국의 여론 선동 전술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시위대, 대만 총통선거 등에서 중국이 사용한 전술이 적혀있었다. 여기엔 관영매체, 외교공관, 영향력 있는 SNS 사용자, 다수의 댓글알바까지 긴밀한 협조체제와 활동 패턴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전파공정을 통해 중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한국문화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문화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한국의 입장에서서는 전망이 좋지 않다. 우선 표면적으로 중국의 문화침탈은 민간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의 항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문화침탈과 한국의 고유 역사에 대해 세계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비판 없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중국의 투자를 받는 국내 기업의 수가 많으며 이들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투자자와 소비자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해당 기업은 홍보나 프로젝트에 한국 문화를 기피하고 중국 문화를 많이 포함하는 경향이 짙다. 중국의 문화침략에 대응해 최근 국내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BTS, 블랙핑크와 같은 유명인사가 한국의 문화를 매체에 노출하는 경우다. 한복을 개량한 무대의상, 세계적인 규모의 무대에서 한국 전통의 선율로 편곡한 노래, 탈춤과 사물놀이, 삼고무 등이 포함된 퍼포먼스 등은 해외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K-POP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한 만큼 그들의 영향력과 매체 점유도 또한 증가해 그들을 통해 많은 국내의 팬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K-POP 뿐만 아니다. 최근 ‘오징어게임’, ‘런닝맨’, ‘놀면 뭐하니’ 등 K-콘텐츠 또한 한류의 중심이 되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놀면 뭐하니’에서는 베이징동계올림픽기념 헌정 영상을 제작했는데 여기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중국의 문화공정, 즉 문화침략을 지격한 내용도 포함됐다.

서경덕 교수는 “우리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야만 한다.”며 “중국의 ‘문화동북공정’에 당당히 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 널리 소개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과 의식이다. 우리는 지금껏 한복과 김치 등 우리의 문화는 당연히 우리의 것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과 다를 것이 없다. 당연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은 배제하고 왜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것일 수밖에 없는지 바로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이 아닌 필연성을 향한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이종원 기자 jongwon@knsu.ac.kr

한복과 한푸,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 한복이다. 한복을 중국의 전통문화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조선은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속국이었으므로 한복은 명나라 의복인 한푸의 일종이라는 점 ②중국 한푸와 한국의 한복 중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 ③마지막으로 한복은 중국 조선족의 전통의상이기도 하니, 이는 중국의 전통의상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복과 한푸의 뿌리는 다르다. 한복의 원류는 기원전8세기부터 약 500년간 남부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서 활약한 최초의 기마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의 문화양식이라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스키타이의 의복은 상·하의가 구분되어 상의는 좌로 여미고 하의는 남자면 바지를 입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한복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중국의 한푸는 웃옷과 남녀 모두 치마를 입는 남방계 정주민족의 복식을 기원으로 한다. 따라서 한복은 처음부터 바지가 있었지만 한푸는 남녀 모두 치마를 입었다.

고대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에 따르면 전국시대 조나라 무령왕이 기존의 복식을 스키타이계 복식, 즉 남자는 바지를 입는 호복형태로 바꾸라는 ‘호복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당시 오랑캐(북방민족)의 복식을 들인다는 주변의 불만에

도 강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즉 한복과 한푸 모두 스키타이계 복식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전의 한푸는 남자도 치마를 입는 등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한복과 한푸는 이후 각자의 문화와 환경에 걸맞게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이는 종속관계가 아니며 상호관계로서 수렴진화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이다.

두 번째는 조선족의 한복은 한국의 한복 문화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이를 대표할 수는 없고 조선족의 문화가 중국의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 것이라는 논리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을 의미한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한반도 침탈로 인해 이주한 조선인이 조선족의 시초이다. 중국의 논리라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화교 같은 중국계이 주민의 후손들이 퍼져 있으니 중국문화가 여러 나라의 하위문화라는 것도 타당하게 된다.

참고로 중국 전통의상으로 널리 알려진 ‘치파오’는 청나라의 전통의상이지만 중국은 이를 달갑지 않은 여론이 대부분이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한’, ‘당’, ‘송’, ‘명’ 그리고 현재의 중국은 ‘한족’이 통치했거나 민족의 대부분이었던 시기이고 반대로 ‘원’, ‘청’은 변방족이 한족을 지배한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랑캐라 불리는 변방족(청나라)의 의상이 자국 대표의 상이라는 것은 한족이 95%인 현재 중국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한푸부흥운동’이 퍼지는 배경에도 최근 세계적으로 치솟는 한복 인기를 향한 중국의 질투와 더불어 이러한 민족 감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국내 학자들의 분석이다.

고춧가루에 버무린 김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한복에 이어서 중국이 답내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김치다. 중국의 대형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는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된 중국 음식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근거로 든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논문은 한국 김치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한 주요 내용이 빠져있고 오로지 ‘1300년 전 중국 장아찌가 한국에 전해져 오늘날 김치로 진화했다’라는 문장만 발췌되었다. 이런 논리와 함께 같은 절임이라는 이유로 김치를 파오차이의 한 종류라 주장하는 목소리는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퍼지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

중국의 유튜버 ‘리쯔치’는 김치를 만드는 본인의 영상에 해시태그를 #ChinesFood로 적는 등 김치를 중국의 음식으로 표현했다. 같은 시기, 유엔 중국 대사 장쑤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올려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약 한 달 뒤 구글에 ‘김치의 기원(origin of Kimchi)’을 검색하면 그 결과로 중국이라고 나와 국내 네티즌들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는 구글이 사실 확인 후 실수를 인정하고 결과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정했다.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앞서 한복 논란과 비슷한 논리다. 같은 절임

음식이라는 점, 조선족의 문화라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와 똑같은 용어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중국 내에서 김치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 문헌이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치의 특징인 배추와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은 중국의 파오차이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에서 본인들의 전통음식이라 표현되는 김치는 고춧가루로 양념 된 배추의 모습이므로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제작 방식 자체가 다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세계 규격으로 채택된 김치의 정의는 ‘배추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등으로 만들어진 혼합양념으로 버무려 발효시킨 제품’이다. 하지만 국제표준화기구에 채택된 파오차이의 정의는 ‘배추류, 겨자 줄기, 롱빈, 고추, 무, 당근 등을 소금에 절인 채소 제품으로, 소금물에 담가 유산균 발효를 시킨 것’이다. 덧붙여 파오차이를 설명하는 국제표준화기구 문서에 “이 문서는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파오차이와 김치는 아예 다른 역사를 가진 음식 문화이다.



Winter life can also be colorful and enjoyable. One option is to try some homemade kimchi by yourself. Not too difficult. My colleagues said it's super tasty.

장쑤(張軍) 유엔(UN) 주재 중국 대사가 본인 트위터에 한국 김치를 담그는 사진을 공개했다.

출처: 트위터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 김치, 김밥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중국인의 모습이 공개됐다.

출처: 바이두

선배의 진로를 알고 싶어요!

한국체육대학교의 졸업생, 졸업예정자 학우들은 어떤 분야에 뜻이 있을까. 각자 다른 분야에 진출해 있는 4명의 학생을 통해 그들의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김규태 기자 khj96119@knsu.ac.kr

편집기자

레저스포츠산업 17 김예슬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17년도 레저스포츠학과에 입학해 2021년 2월에 졸업한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Q. 졸업 후에 어떤 직업을 가졌나요.
A. 한 신문사에서 편집기자로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직업은 아니라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언론사에는 취재부와 편집부로 나뉘어 있어요. 취재부 기자들은 오전부터 각각 맡은 아이템을 취재한 후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기자들은 신문이 인쇄소에 넘어가는 시간 직전까지 이 기사들을 바탕으로 판을 짜고 제목과 부제를 작성한답니다.

Q. 인턴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언론사만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꿈이 생기면 꼭 인턴을 해보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에 대한 책임은 덜 하지만 그 직업을 가장 잘 경험해볼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다른 20~30년 차 편집기자 선배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웠어요. 전체적인 기사를 파악하는 능력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덕분에 제가 가진 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게 됐답니다.

Q. 인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A. 남들과 비슷하게 대학생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활동을 했습니다. 교내 학보사, 방송국 외에도 스포츠신문 기자단 등 다양한 기사 형태를 익힐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각종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처럼 나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세계에서 일해보기도 했고요. 사실 이걸 기자가 되려면 누구나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경청하는 자세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현장, 분위기는 기자가 느끼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터뷰를 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땐 어떤 말을 끌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당락이 좌우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기자의 자세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 경청하는 자세, 즉리액션이나 질문의 시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이 이어져 인턴이라는 좋은 기회로 이어졌고요.

Q. 학교에서 취업의 도움을 주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나름 다양한 언론 활동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맨땅에 헤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터뷰할 때 상대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사전 취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그냥 가서 부딪쳐보고 우여곡절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4학년 때 저널리즘 관련 수업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이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 갔어야 했구나” 등 일찍 수업을 들었다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언론 관련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관련 수업을 꼭 수강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6. 실무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저는 경제 섹터에서 기업, 경제 이슈, 금융증권 면 기사 편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 없어서 초반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행여나 금융 관련 사태가 터지면 아침에 단어 공부부터 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기사 내용을 파악하고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눈에 잘 띄는 제목을 20분 안에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행여나 취재부에서 기사가 늦게 넘어오거나 마감 시간이 임박하는 날엔 타자기가 흥건했습니다.

7.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체대 학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직업을 택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인턴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턴을 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인데 설마 생각이 달라질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정말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 또한 하나의 깨달음, 새로운 단계로 연결되었습니다.

리듬체조 선수

체육 20 서고은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3학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서고은입니다.

Q. 리듬체조 선수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의 권유로 시작한 리듬체조에 흥미를 느끼고 재능을 발견하면서 리듬체조 선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Q. 리듬체조 선수는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나요?
A. 리듬체조 선수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면 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스포츠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며 광고 등을 촬영하여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Q. 운동할 때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A. 운동할 때 힘든 점은,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꾸준한 체중 관리, 식단 관리도 힘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우리 대학만의 장점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하면 도움을 받은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한국체육대학교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시설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다양한 종목의 동기, 선우체들과 좋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련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Q. 은퇴 후 원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A. 은퇴 후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와 리듬체조 국제심판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며, 최종적으로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Q. 리듬체조 선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리듬체조 선수를 꿈꾸는 분들에게 리듬체조를 사랑하고, 매 순간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빛나는 리듬체조 선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트레이닝 코치

노인체육복지 16 조영민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를 올해 2월에 졸업한 16학번 조영민입니다. 현재 스포니스 반포점에서 트레이닝 코치로 근무 중입니다.

Q. 트레이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어릴 적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팀 선수 트레이너, 재활 트레이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니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학교 혹은 학과에서 어떤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요.
A.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과의 선우배, 조교 선생님, 교수님을 통해 관련 직업의 전망에 대해 듣고, 학과에 주요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매년 노인운동 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인운동 지도 사업은 체육 취약계층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학과의 학생들이 다양한 기관에 파견되어 재능 나눔을 실시합니다.
제가 1~2학년 재학 시절에는 현장으로 파견을 나가 직접 운동을 지도했고, 3~4학년에는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운동 지도와 사업 계획 및 보조를 담당했습니다. 대면 비대면 활동 모두 경험해 봄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첫 시작은 대외활동 프로 AT(Athletic



Trainer)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선수 트레이너에 대한 정보와 관련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수 트레이닝에 관심이 있어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한 것은 스포니스에서 주관한 현장 실습 참여였습니다. 구술 및 실기를 통한 면접을 진행했고, 실습생으로 선정되어 3주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지점 트레이닝 선생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저항성&기능성 트레이닝 방법, 재활&선수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공부하였고, 타 재활센터 및 병원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습생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Q.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매력에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똑같은 부상 또는 질환이어도 사람의 특성이 개인별로 다른 만큼 같은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상태, 습관, 환경, 운동 수행력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운동 처방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는 한 가지만을 고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롭고 다른 방법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항후 대상자의 부상 및 질환 상태, 운동 수행력, 신체 교정 등 트레이닝에 대한 변화가 보이고 대상자가 만족감을 나타냈을 때 뿌듯하면서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해당 직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이 직업은 배움의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눈도 필요합니다. 트레이너는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니다. 저 또한 신입생 때 비슷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내가 배우고 노력한 만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직업이 바로 트레이너라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직업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몇몇하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 직업을 택했을 때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노인체육복지 17 이상의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노인체육복지학과 17학번 이상의입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사회복지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가정방문을 하여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러 어르신 중 한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봉사자 선생님들 덕분에 어르신의 마지막이 덜 외로웠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Q. 학교 혹은 학과에서 어떤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요?
A. 학과에서 진행했던 ‘선우배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계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증, 활동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 교수님과 조교 선생님께서 진로 상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방향의 길을 두고 고민할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셨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진로 상담을 받으며 이력서 작성법을 배웠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어 막막했지만 인재개발원의 도움을 받고 잘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Q.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했던 기간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개월입니다. 사회복지실습을 했던 기관에서 서포터즈와 봉사를 병행하며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격증들을 준비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A. 나로 인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현재 저는 노인 일자리 담당을 맡고 있는데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일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Q.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사는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질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를 직업으로 꿈꾸면 추가로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고,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의료, 정신보건, 학교사회복지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봉사 정신을 갖춰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문성 높은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림픽 첫 출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박성현 학우 인터뷰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Q. 안녕하세요 박성현 선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출전한 박성현입니다.

Q. 2022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여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하였는데 올림픽을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출전하는 올림픽이어서 다른 국제 시합보다 더 긴장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도 좋은 레이스로 마무리를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Q. 귀국하신 후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나요? 올림픽 이후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한국에 입국해서 하루 격리를 하고 바로 전국체전이 있어서 시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림픽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딱히 없는데 SNS 팔로워가 조금 많아졌다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거 같아요.

Q. 많은 빙상 종목 중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때 학교에 인라인 부가 있었어요. 인라인 부는 여름에는 인라인 훈련을 하고 겨울에는 스피드스케이팅 훈련을 했는데 친누나가 먼저 시작을 하게 돼서 저도 인라인과 스피드스케이팅을 같이 시작했어요.

Q. 많은 연습량과 훈련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훈련할 때마다 목표에 가까워지는 걸 생각하면서 훈련을 했어요. 올림픽이라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든 운동을 버틸 수 있었어요.

Q. 팀 추월 경기에서 멋진 레이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단체전 경기와 개인전 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경기 운영에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개인전 경기는 오로지 앞만 보고 자신만을 위한 레이스를 하지만 팀 추월 경기는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해요. 훈련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먼저 팀 추월 종목은 총 8바퀴를 버틸 수 있는 장거리 훈련을 중점으로 해요. 제가 개인종목에 출전했던 1,500m는 선수마다 경기 운영방식이 다 다르지만, 저는 초반에 속도를 올리고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기를 끝내자는 방법으로 훈련을 했어요. 저는 장거리 훈련보다는 단거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왔어요.

Q.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을 것 같은데요. 김민석, 정재원 선수와 함께 찍은 개막식 영상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기획하게 된 건지 영상의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A. 스피드 종목에서는 개막식을 저 혼자 가기로 되어있었어요. 근데 올림픽 선수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합 전에 가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개막식을 중계로 다 같이 보고 있다가 제가 민석이랑 재원이한테 우리 옷 다 챙겨 입고 대한민국 선수단 입장할 때 맞춰서 같이 입장하는 걸 동영상 찍어서 올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59번째 나라가 입장할 때 얘기를 꺼내서 급하게 옷을 입고 기다렸다가 우리나라 선수들 입장 순서가 됐을 때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아서 찍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현재 졸업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본인은 어떤 학생이었다고 생각하나요?

A. 운동과 노는 것 둘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학생이었던 거 같아요. 운동도 항상 최선을 다했고 노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놀았던 거 같아요.

Q. 한국체육대학교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A. 딱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뽑자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타 종목 친구들을 알게 되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거 같습니다.

Q. 선수로서 본인의 최종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알았고 다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다음 올림픽 때까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게 앞으로



출처: 스포츠 조선

의 계획입니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Q.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외에 관심 있는 종목이나 도전해 보고 싶은 종목이 있나요?

A.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해요. 탁구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요. 이번에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탁구대가 있어서 시합이 끝난 선수들과 탁구를 하면서 같이 놀았어요. 다른 종목을 도전해 본다면 탁구에

Q. 마지막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 때문에 학교생활도 많이 못하고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서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모두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2회 연속 은메달, 스피드 스케이팅 차민규 동문 인터뷰

스스로에 대한 굳은 믿음의 결과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차민규 라고 합니다.

Q. 올림픽 일정을 소화하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귀국 후 현재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나요?

A. 아직 시합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올림픽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타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나 방송 출연 섭외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A. 귀국하고 격리한 지 하루가 지나 아직까진 실감이 나거나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외부 일정에 관한 얘기는 살짝 들리고 있는데 시합이 코앞이다 보니 확정을 지은 일정은 따로 없고 현재 일정들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Q. 올림픽 2회 연속 은메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메달을 획득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아요. 훈련하는 과정이 좋진 않았었는데 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임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이전 인터뷰에서 올림픽 당일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자신만의 컨디션 회복 방법이 있나요?

A. 올림픽에 맞춰 컨디션을 올리는 특별

한 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다 컨디션이 좋았던 상태를 기억해줬다가 올림픽 시기에 맞춰 그 상태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먹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매 끼니를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컨디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챙겨 드신 식단이 있나요? 평균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A. 식단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꼭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밤이 안 넘어가도 조금이라도 꼭 섭취하려고 했어요. 수면 루틴에 관해서는 너무 정직하게 지키려 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계적으로 맞추진 않았어요. 피곤함이 느껴지면 바로 자려고 하는 등 흐름에 맞춰 유동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Q. 몸 상태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훈련 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한 정신력 관리하는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A. 훈련 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부 사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최대한 주어진 상황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올림픽이 큰 대회이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부담이 되어 성적이 저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생각과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Q. 많은 빙상 종목 중 스피드 스케이팅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쇼트트랙 선수로 활동을 했다가 대학교에 입학하여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교수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다가 성적이 좋

아 두 가지 종목을 병행하다가 실업팀에 들어가며 한 종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Q. 종목을 변경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 않으셨나요? 종목 변경에 대한 후회가 남진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A. 대학교 당시 두 종목 시합을 동시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두 종목의 성향이 달라서 경기가 혼동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어요. 종목 변경에 대해서는 후회는 아니지만 아쉬움은 조금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이 쇼트트랙 강국이기도 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 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 처럼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게 되어 현재는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골반 부상으로 인해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저희 종목 특성상 하체를 위주로 사용하는데 하체 부상으로 훈련하면서 기량이 잘 나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어요. 현재는 재활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Q.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학교 생활할 때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유별나게 튀는 행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대학교 1학년 축제 기간에 훈련했었는데 조교님들과 교수님들이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면 휴식을 주겠다고 하셔서 모두가 열심히 단합하여 운동하고 다 같이 축제를 즐기러 갔던



출처: 연합뉴스

일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대학교 때 큰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었는데 그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Q. 올림픽 이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 아직 특별하게 세운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올림픽을 마쳤으니 시즌까지 끝나면 휴식을 갖고 가볍게 운동도 할 것 같은데 자세히 세워둔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Q.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을 생각하고 있나요?

A.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나 환경에 따라서 생각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임할지에 대해 더 생각해보려고 해요.

Q. 마지막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을 한체대 후배들과 학우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재학생 시절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 다 보니 그 시간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모든 걸 도전해보고 사회에 나가더라도 자신을 믿고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믿으면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방지혜 수습기자 202090020@m365.ksnu.ac.kr

교수 칼럼

연구년! 사이클과 스쿠버다이빙 그리고 제주생활



육현철
사회체육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먼저 22학번 새내기 학생 여러분들의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육현철 교수입니다. 2021년 3월부터 1년 연구년을 시작하면서 자신과의 약속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는 ‘생존수영 이론과 실제’ 책을 완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전거 국토종주 그랜드슬램(1,888km)을 달성하는 것,

셋째는 제주도에 3달간 살며 할 수 있는 레포츠 제대로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100%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째, ‘생존수영 이론과 실제’라는 책은 지금 대학생인 아들들이 태

어나면서부터 종단적 연구로 시작하여 이번 연구년을 보내면서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어린 시절부터 ‘육실에서 물 적응 훈련’, ‘물놀이를 통한 뜨기 훈련’ 등과 함께 생존수영 책이 완성되는 것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아들들은 어렸을 적부터 생존수영을 통하여 현재는 인명구조 자격, 수영지도사 자격(사단법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국가고시)을 취득하여 매우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아들들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둘째, 자전거 국토종주 1,888km 완주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국토 종주 자전거 길은 아라자전거길(116km), 남한강 자전거길(114km), 금강 자전거길(146km), 동해안 자전거길(242km), 영산강 자전거길(133km), 북한강 자전거길(160km), 오천 자전거길(105km), 섬진강 자전거길(149km), 제주한상 자전거길(234km), 새재 자전거길(100km), 낙동강 자전거길(389km)

등 11개 구간으로 총 1,888km입니다.

이제 새재 자전거길(100km)과 낙동강 자전거길(389km)만 돌면, 전부 다 종주하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전국 국토 종주 자전거 길을 돌면서 우리나라 풍경이 정말로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많은 충고와 염려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타다보면 힘들고, 덥고, 춥고, 위험한 일이 많이 있지만, 목표지점에 달성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기쁨은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제주 세 달 살이’를 하며 다양한 레포츠 제대로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제주 한 달 살기, 1년 살기 등을 매우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은 마음먹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법

적으로, 도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도전해보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나는 올 여름에 ‘제주 세 달 살기’를 하면서 오픈워터 바다수영, 스킨스쿠버다이빙, 골프, 승마, 굴 파기 체험, 어선 스크류 작업 체험, 돌레길 걷기, 모터 사이클 등을 주로 하였습니다. 특히,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은 수영을 조금만 할 줄 알면 매우 쉬운 운동입니다. 스킨스쿠버다이빙이나 승마 등은 대부분 무섭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선입견입니다. 기초부터 점진적으로 배운다면 그 매력에 금방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3가지를 실천하는 연구년 기간 동안 성공을 위한 ‘3력’도 정리되었습니다. ‘21세기의 성공 3력’은 첫째,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어떤 일도하기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체력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둘째는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취업도 되지



동해안자전거길 종주 중인 육현철 교수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단력입니다. 단력이 없으면 체력과 실력이 있어도 도전하지를 못합니다. 혹시 망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등을 걱정하느라고 실행을 하지 않아 성공은 커녕 실패도 하지 못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한국체육대학교 학생 여러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불안하고 위험성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체력을 기르고, 실력을 쌓아, 단력으로 실행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학생 여러분의 성취를 기원합니다.

기자석 I

녹슨 쿠베르탱의 이상(理想)



기민정 수습기자

“올림픽 의의는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라 불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은 해당 올림픽 강령 속에 자신이 꿈꾸는 올림픽 이상을 녹여내 일생을 올림픽 발전과 스포츠 활성화에 헌신했다.

그런데 명맥을 이어오던 그의 이상에 어느 순간 녹이 슬기 시작했다. 승리 지상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메달이라는 성공의 산물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자 결국 국제평화 무대의 장이었던 올림픽이 메달 색깔을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녹슨’ 쿠베르탱의 이상은 평창으로부터 성화를 이어받아 얼마 전 석연치 않은 막을 내린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올림픽에서 유독 말이 많았던 쇼트트랙 종목에서는 개최국인 중국에게 치우친 판과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파문이 일었다. ‘블루투스 터치’와 ‘아이템전 경기’ 사건을 발단으로 해당 파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치러진 남자 1000m 경기에서는 의혹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라인

변경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 선수들(황대헌·이준서)을 실격시키는 이해하기 힘든 판정을 내려 떨어질 뻔한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와, 결승 경기에서는 경합 과정 중 더 많은 파울을 범한 중국 선수에게 어떠한 패널티도 주지 않고 1등으로 들어온 헝가리 선수만을 실격시키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중국 선수들이 나란히 금·은메달을 거머쥐게 되면서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물론 경기에 대한 판정 권한은 전적으로 심판에게 부여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의 결정이 무조건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오심이라는 비판의 물결이 거세고, 무엇보다 판정의 결과가 개최국인 중국의 메달 획득이라는 부분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과언 착각일까.

여자 피겨스케이팅 종목도 쇼트트랙 못지않게 말이 많았다. 유력 금메달 후보였던 러시아 발리예바 선수와 스페인 바르케로 선수가 도핑에 적발됐고, 은메달을 차지한 러시아 트루소바 선수는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자 “나만 금메달이 없다”, “다시는 스케이트를 타지 않을 것이다”, “시상대에 오르지 싫다.”는 등 울분을 토하며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추태를 보인 것이다.

앞선 사례들과 같이 이번 올림픽에서 비춰진 스포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제부터 올림픽이 메달 색깔만을 쫓는 비폭력 세계대전이 되어버린 것인지 회의감이 드는 한

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것은 바로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였다.

평창을 끝으로 이상화 선수와 라이벌 관계가 아닌 홀로 베이징의 빙판을 가르게 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키 선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상화 어디 있어요?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안 좋았어요, 분발할게요.”라는 인터뷰 내용을 남기며 건재한 국경 없는 우정, 그리고 진정한 라이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시상식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함께 셀카를 찍으며 시상대의 계층을 허무는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박지우 선수는 상대의 발에 걸려 넘어진 후에도 상대를 걱정하며 일으켜 세우고 함께 다시 경기를 뛰는 가슴 따뜻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쿠베르탱이 일생을 바치며 꿈꿔왔던 이상이자,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인 ‘스포츠맨십’이 아닐까.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Citius, Altius, Fortius)”. 해당 올림픽 표어에 쓰이는 ‘보다’는 사전적으로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라는 부사적 의미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에 쓰이는 격 조사의 의미, 2가지 의미를 지닌다. 무한 메달 경쟁으로 격 조사의 의미가 짙어진 올림픽 정신, 이제는 원래의 부사적 의미를 되찾아야 할 때다. 스포츠맨십이라는 윤활제를 통해 녹슨 쿠베르탱의 이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방지혜 수습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두 나라의 전쟁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자국민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이런 만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자국민들이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 또한 러시아 내 제품 수출 및 판매 중단으로 러시아 보이콧을 하는 등의 반러시아 운동이 일고 있다.

러시아를 향한 보이콧은 스포츠로도 번지게 되었다. 세계축구연맹(FIFA)는 러시아에 월드컵 퇴출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또한 2022 베이징 겨울 패럴림픽에서 러시아를 퇴출하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모든 국제 스포츠연맹에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대회 전면 취소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개최된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가 ‘NO WAR UKRAINE’ 문구를 외침에 잇따라 러시아의 많은 스

포츠 선수들까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의 전쟁 선포에 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현대 모터스 김보경 축구 선수가 경기 중 골 세레머니로 카메라에 “NO 전쟁, 우크라이나”를 외쳤다.

이처럼 스포츠는 각각의 종목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그 팬들의 파워 또한 크기 때문에 그만큼 스포츠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울림이 있다.

따라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관해서도 스포츠가 기여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한참 정점에 이르렀을 당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프리스타일 남자 스키 종목의 러시아 선수와 우크라이나 선수가 뜨거운 포옹을 한 것이 화제가 되었던 것을 가장 큰 예시로 들고 싶다.

프리스타일 남자 스키 에어리얼 결승에서 우크라이나 올렉산드로 아브라멘코 선수의 은메달이 확정되자 러시아 선수인 일리아 부로프 선수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축하해주며 서로 포옹을 나눴다. 두 선수의 포옹은 침공 개시일까지 거론되고 있었던 두 나라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된 시기에 스포츠를 통해 화합의 가능성과 평화의 메시지를 몸소 보여준 선례적 사례이다. 이는 그 어떠한 반전 구호보다도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베이

징올림픽 폐회식에서는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두 선수의 포옹 사진이 포함될 정도로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혔다.

필자는 두 선수의 뜨거운 포옹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슬로건인 ‘함께하는 미래’를 가장 잘 나타낸 순간이자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세계에 제대로 시사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갈등을 넘어선 두 선수의 우애가 참 인상 깊다.

지난 4월 개최된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은 “21세기는 전쟁과 증오가 아닌 대화와 외교의 시대이며 연대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세상은 분열이 아닌 나눔의 공간이어야 한다. 변화는 스포츠에서 시작된다.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도시, 국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연설했다. 그의 연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포츠는 국가 갈등과 정치 문제에서 평화의 정신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 많은 스포츠 스타들의 용기에 존중을 표하며 하루 빨리 현재가 마무리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선량하게 쓰이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nsu.ac.kr>

발행인 | 안용규 주 간 | 허진석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장재인
기 자 | 이종원·김규태·기민정·김수빈·방지혜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필승관 B106호
전 화 | (02)410-6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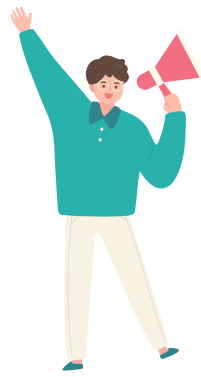
한국체육대학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신문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고와 제보는 이름, 연락처, 학번, 학과를 기입해서 이메일(actibeast@knsu.ac.kr)로 보내주시거나 필승관 B106호로 방문 바랍니다. 원고가 실린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헌내기, 새내기 여기여기 붙어라

22학번 새내기를 위한
〈비대면 한국체대 가이드〉



사그라들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학교에 발을 들이지 못한 지도 어느덧 3년째. 학생들의 발길이 끊겨 냉랭하기만 한 학내 분위기 속, 봄기운을 가득 머금고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된 22학번 신입생들을 위해 학보사에서 <비대면 한국체대 가이드>를 준비했다. 먼저 교무처, 훈련학생처 등 대학 본부 부처 외에도 한국체대 학생들의 보람찬 대학 생활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국체대 속 숨은 이벤트즈' 부대를 소개한다.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원은 대학 구성원의 풍부한 지식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위논문·연속간행물·전자자료·신착자료 등에 대한 열람 및 대출/반납·예약의 전반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들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 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레포트 제출 시 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표절 예방(copy killer) 시스템도 잘 활용해보자.

(참고: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산학협력본부

해외 기관과의 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 세계화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21세기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된 산학협력본부는 교환학생·배낭여행·어학연수·자매 기관 방문 등의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현재는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코로나가 회복된 이후 산학협력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 산학협력본부 홈페이지)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에서는 대학 생활 중 학생들이 직면하는 취업·창업·심리·인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취업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인권센터를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가 있다면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내 모의 토의 ▲자소서 완성 취업캠프 ▲직무체험 취업캠프 등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참고: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교수학습개발센터

창발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계적 스포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교수법 및 학습법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및 핵심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3D 프린팅 교육 ▲창의 프로젝트 ▲학습 코칭 및 도우미 프로그램 ▲기초학습+전공기초 UP 프로그램 ▲RWS 능력함양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공모전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란 학생들과 교직원 및 임직원의 대학 내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가 생협 조합원이 되어 운영자임과 동시에 정책 결정자가 된다. 공동구매로 이루어지고 원가를 고려한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값이 저렴해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생협의 장점이다. 또한 식당 및 매점 사업 등에서 남는 잉여금은 보다 편리한 시설 확충에 재투자되거나 학내 생

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쓰이게 된다. 우리 대학은 2020년에 처음 생협이 창립되었으며, 체육과학관에 위치한 생협 매장인 큰수저와 큰수커피, CU 편의점도 그 해 함께 문을 열었다. 큰수저의 경우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큰수커피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료를 만나볼 수 있으니 학교 방문 시 꼭 이용해보길 바란다.

(참고: 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
가민정수습기자202071004@m365knsuackr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발견하는 나만의 커리어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KNSU 학생 포트폴리오 공모전'에 참여해 2021년 대상·2020년 장려상을 수상한 윤예린 학우와 인터뷰를 나눴다.

Q. 어떤 계기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스포츠 마케팅 동아리 PLIS에서 활동하며 선배들로부터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조언을 들었어요. 조언을 듣고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니,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명확하게 기억해 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조별 과제, 동아리 등 제가 했던 모든 활동에서의 역할과 하게 된 이유, 느낀 점 등을 정리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KNSU 학생 포트폴리오 공모전'이 그 기록을 다시 되돌아보고,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KNSU 포트폴리오 공모전'의 장점을 이야기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희망 직무의 취업 공고를 찾아보며 부족한 점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포트폴리오에 나타나는 저의 역량과 경험,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경험을 비교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게 돼요.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꼭 필요하지만, 명분이 없으면 미루곤 하는데, 포트폴리오 공모전이 그 명분을 제공해 줬던 것 같아요.

Q. 22학번 신입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1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2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공모전에 한 번쯤 참여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예린(레저스포츠산업 20)



생활협동조합, 생생한 현장을 들어보다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하나인 CU편의점에 근무하는 학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협동조합의 생생한 현장을 들여다봤다.

Q. 근무하시는 매장에 적용되는 생활협동조합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활협동조합원에 해당하면 체육과학관 내 위치한 CU편의점에서 구입하는 물건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카드를 제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 편의점 이용자 중 생활협동조합원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체육학과 학생들과 학교에 상주 하디시피 하시는 교수님들의 경우, 생협 카드를 많이 이용하세요.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매장 이용 빈도가 높아 혜택을 보는 편이 더 이득이라 그런 것 같아요. 체육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 학생들이

카드 이용하는 건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나올 일이 줄어들어서인 것 같아요.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 조합원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지 않을까 싶네요.

Q. 22학번 신입생들에게 생활협동조합에 관해 이야기해주신다면?

사실 편의점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저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다면 저도 바로 조합원에 가입할 생각이에요. 생활협동조합원이 되면 편의점뿐만 아니라 큰수커피나 학생 식당에서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22학번 신입생 여러분도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혜미(레저스포츠산업 20)



KNSU 동아리 어워드



태권도 품새 선수의 양성
성과 국가대표의 배출
목적 및 품새 능력 향상과 친목도모

스포츠

전국권 생활체육 농구
대회의 입상을 위해 남녀
각 팀의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게임 진행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참여 및 학우들간의 친목형성



악기를 배우고 밴드활동을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각 장르별 춤을 배우고 무대를
준비하여 공연, 대회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화합과 친목도모

취미



한국체대의 밝고 힘찬 모습을
외부에 알리며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건전한 응원 문화 확립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학술동아리와 동아리원들의
친목 활동



노인체육 및 복지 분야의
진로탐색 및 자기계발활동
진행

학술



헬스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 등
같은 진로를 희망하는 학우들과
모여 스포츠 의학 관련 스터디

※2021년 동아리 등록인원수 기준

미술랭가이드 한국체대 2022

보성갈비(★★★★★)

서울 강동구 심내동 429-8 (05495)
"입안에 맴도는 완상적인 육즙의 향연"



추천메뉴: (점심특선)청춘백반 (7000원)
[제휴] 현금 결제 시 7000원 → 5500원,
갈비 3인분 주문 시 1인분 추가

멘야끼(★★★★☆)

서울 강동구 심내동 439-5 (05405)
"심내동 모 건물 2층에서 만난 정통 일본"



추천메뉴: (런치세트) 미니라면+미니덮밥
[제휴] 음료, 주류 1000원 할인

성내식당(★★★★☆)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81길 8 (05408)
"주머니속 6000원으로 만나는 그리운 손맛"



추천메뉴: 오늘의 백반 (6000원)

제휴 혜택을 위한 학생증 지참 필수